

#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 대학생의 죽음의식과 좋은 죽음 인식에 대한 연구

백소영  
청암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A Study on the Death Consciousness and the Awareness of Good Death in the College of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So-Young Baek  
Dept. of Nursing, Cheongam College, Assistant Professor

요 약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 대학생의 죽음의식과 좋은 죽음 인식을 파악하고 관계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8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S시에 소재한 C대학의 3학년 111명, 4학년 94명인 총 2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죽음의식과 좋은 죽음 인식정도 모두 보통수준이었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의식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본 경험에서( $t=.559, p=.002$ ), 좋은 죽음 인식은 죽음교육( $t=.777, p=.018$ )과 죽음에 대한 이해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2.964, p=.033$ ). 학년과 좋은 죽음 인식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r=.161, p=.021$ ), 죽음의식과 좋은 죽음 인식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r=-.71, p=.311$ ). 본 연구의 결과로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 대학생들의 죽음의식과 좋은 죽음인식 정도와 죽음생각과 죽음교육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으며, 죽음의식과 좋은 죽음 인식 향상을 위한 간호교육과 관계 확인을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학생, 간호대학생, 죽음, 죽음의식, 좋은 죽음 인식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eath consciousness and awareness of good death of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Th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or a total of 205 students from June 1 to June 15, 2018, who are 111 students in third grade and 94 students in fourth grade at S City of C university. Death consciousness and awareness of good death were both normal. Death conscious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was the experience of thought about death( $t=.559, p=.002$ ), and awareness of good death was death education( $t=.777, p=.018$ )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understanding death( $F=2.964, p=.033$ ).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grade and awareness of good death( $r=.161, p=.021$ ), but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death consciousness and awareness of good death( $r=-.71, p=.311$ ).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able to understand the death consciousness and awareness of good death, the importance of death thought and death educa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who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and the needed to repeated research for nursing education and relationship confirmation to improve the death consciousness and awareness of good death.

**Key Words** : Student, Nursing Student, Death, Death consciousness, Awareness of good death.

\* Corresponding Author : So-Young Baek(bcw0@hanmail.net)

Received July 19, 2018

Accepted October 20, 2018

Revised August 21, 2018

Published October 28, 2018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삶과 죽음은 인간의 정상적인 과정으로 죽음은 경험의 세계를 초월하는 사건이다[1]. 더구나 죽음을 대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음을 제대로 알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삶은 죽음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다[2]. 또한, 죽음을 다루는 방식은 곧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생명에 대한 존엄성만큼 죽음의 존엄성이 보존되어야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3].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고 이를 직면하여 올바르게 수용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3]. 특히 간호제공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의식과 인식이 간호대상자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임종환자의 간호에 앞서 간호제공자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정립이 필요하다. 간호사는 간호현장에서 죽음을 앞둔 대상자를 많이 접하게 되므로 대상자가 죽음의 의미를 추구하고 받아들이며,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은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생명연장을 위해 치료를 유지할 것인지,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위해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힘든 결정을 대상자나 가족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이러한 결정에 대상자나 가족 곁에 있는 간호사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의식과 인식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호사는 임종환자에게 다가갈 때 죽음의 불안에 직면하지만, 이러한 불안은 죽음을 맞는 대상자를 도와주기 전에 직면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러므로 간호사 스스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신이 죽음에 대한 깊은 감정에 직면할 수 있어야 죽어가는 환자를 돌볼 수 있다[4]. 죽음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이 올바르게 확립되어 있지 못한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죽음의식은 Thorson & Powell[5]이 죽음에 대한 염려, 불안, 두려움, 이해 및 죽음의 의미 등의 여러 요소가 복합된 다차원적 개념으로 정의하였는데, 삶과 죽음의 의미가 확립되는 대학시기의 간호 대학생들은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어 다른 인생주기에 비해 내부적, 외부적 혼란을 경험하게 되고[3] 예비 간호사로서 간호 대상자에게 직·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의식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더구나 현대의학의 발전과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로 수명이 증대되면서 현대인들은 자연적 죽음보다는 병원에서의 죽음을 맞는 경우가 많아졌다. 2016년 국가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약 28만 명 중 21만 명인 74.9%가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한다[6]. 또한 의학 기술 발달은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고통스러운 삶을 무의미하게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7]. 그러면서 죽음 뿐 만 아니라 좋은 죽음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게 되어 잘 죽는 것에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좋은 죽음의 정의를 한마디로 내리는 것은 어렵지만, 좋은 죽음은 죽음의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자기 조절감을 갖는 것으로 인간으로서의 가치나 신념이 존중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8]. 임상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대상자에게 간호를 수행할 미래의 간호사로서 간호 대학생은 대상자들이 원하는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공감하고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의 정립이 필요하다[9]. 그러므로 간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간호 대학생들의 좋은 죽음 인식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호 대학생은 예비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역량을 교육과정과 임상실습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데, 삶과 죽음의 의미가 확립되는 대학시기의 간호 대학생들은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어 다른 인생주기에 비해 내부적, 외부적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3]. 임상실습을 시작하지 않는 간호대학생보다도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간호 대학생들은 임상현장에서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죽음을 맞이하는 대상자와 가족들을 자주 접하게 되고 간호수행에 참여하게 되는데, 특히 임상실습 등에서 죽음을 앞둔 대상자를 직면할 때 부담감, 혼동과 불안감, 공포를 느끼게 된다[10,11]. 이러한 경험은 죽음의식과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에 따라 죽음을 해석하고 인식하여 대상자와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상실습경험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죽음연구[12]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경우 긍정적인 죽음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임상실습학년은 임상실습을 시작하는 학년과 몇 번의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년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러한 학년 간에는 임상실습기간 차이도 있으므로 죽음의식과 좋은 죽음인식차이도 존재할 것이다. 죽음을 인식하는 것은 임종을 앞둔 대상자 간호에 있어 중요한 요소

이고 간호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임상 대상자의 간호를 효과적이고 능숙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13,14], 무엇보다 미래 간호사로서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죽음의식과 좋은 죽음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다.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죽음의식과 좋은 죽음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생명윤리교육과 죽음의식, 죽음태도 및 생명의료윤리 의식 차이 연구[15], 생명윤리의식과 좋은 죽음의식, 자아 존중감이 연명치료 중단태도에 미치는 영향연구[16], 죽음태도 영향요인연구[10], 간호전문직과 죽음윤리의식과의 관계연구[17] 등으로 주로 교육과 죽음, 좋은 죽음의식, 윤리의식과의 관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실습기간과 교육기간과의 차이가 있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 대학생들의 죽음의식과 좋은 죽음 인식 간 차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죽음의식과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죽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긍정적인 의식형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을 탐색하며, 궁극적으로 간호 대상자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간호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의 기초자료에 활용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 대학생의 죽음의식과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여 간호 대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긍정적 죽음의식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간호교육의 기초자료에 활용되고자 함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 대학생의 죽음의식과 좋은 죽음 인식정도를 파악한다.
- 2)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의식과 좋은 죽음 인식정도를 파악한다.
- 3)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 대학생의 죽음의식과 좋은 죽음 인식정도의 관계를 확인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 대학생의 죽음의식과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관계를 확

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로 설문조사에 응한 만 18세 이상의 S시에 소재한 4년제 C대학의 간호대학생 3학년 111명, 4학년 94명인 총 205명으로 2차병원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임상실습을 시행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 2.3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8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S시에 소재한 C대학의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와 목적, 응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됨을 설명하였다. 이후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서면동의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 2.4 연구 도구

#### 2.4.1 죽음의식

죽음의식을 알아보는 측정도구는 Thorson & Powell[5]의 죽음의식 측정도구를 박석춘[18]이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이진숙 등[19]이 사용한 도구를 이용했다. 총 25문항 7개의 하위요인으로 죽음의식도구를 구성하였는데, 요인1은 '자기지배능력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문항 6, 7, 12, 17, 요인2는 '내세의 존재여부에 대한 불안'으로 문항 2, 3, 9, 13, 20, 요인3은 '신체에 대한 염려와 주체성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문항 4, 11, 21, 25, 요인4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 문항 1, 5, 8이다. 요인5는 '신체의 소멸과 삶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문항 14, 18, 19, 22, 24, 요인6은 '미지의 사건에 대한 불안'으로 문항 16, 요인 7은 '가족에게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한 불안'으로 문항 10, 15, 23이다. 역문항은 4, 10, 11, 13, 16, 17, 21, 25번 문항이며, 각 문항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과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척도로 부정문항에 대해 역산하였다. 평균점수 3.0 이상은 죽음의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 염려, 두려움이 높고 죽음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하며 2.0-2.99점 사이는 중간수준으로, 1.99점 이하는 죽음의식정도가 낮고 죽음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 염려, 두려움이 낮다고 해석한다. Thorson & Powell의 연구[5]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09$ 이며,

이진숙 등의 연구[19]에서는 Cronbach's  $\alpha = .84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55$  이었다.

#### 2.4.2 좋은 죽음 인식

좋은 죽음 인식은 Schwartz 등[20]이 개발한 좋은 죽음 도구(The Concept of Good Death Measure)를 정현숙[21]이 번안한 좋은 죽음 인식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친밀감 9문항(문항 4, 6, 7, 8, 9, 10, 11, 12, 13), 통제감 3문항(문항 15, 16, 17), 임상증상 5문항(문항 1, 2, 3, 5, 14) 등 총 3개의 하위영역,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부터 4점 '매우 중요하다' 의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7$  이었으며, 정현숙의 연구[21]에서 Cronbach's  $\alpha = .8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662$  이었다.

#### 2.5 자료 분석 방법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간의 차이검정은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를 시행하였다. 대상자들의 죽음의식과 좋은 죽음 인식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3학년은 111명(54.1%), 4학년은 94명(45.9%)이었다. 3학년 학생 중 남자는 15명, 여자는 96명이었고, 4학년 중 남자는 2명, 여자는 96명으로 전체적으로 남자가 17명(8.3%), 여자는 188명(91.7%)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다. 연령은 21-22세가 96명(46.9%), 23-24세가 97명(47.3), 25-26세와 27세 이상이 각각 6명(2.9%)이었다. 종교가 있는 학생은 69명(33.6%), 없는 학생은 136명(66.4%)으로 전체적으로 종교가 없는 학생이 많았다. 죽음관련 특성으로 윤리적 가치관은 '매우 확고하다'가 20명(9.8%), '어느 정도 확고하다'가 135

명(65.9%), '가끔 혼돈된다'가 29명(14.1%),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뀐다'가 21명(10.2%)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본적이 있다는 163명(75.6%), 없다는 41명(20%)이었다. 가까운 친지나 가족의 죽음경험에 대해 경험이 있다는 155명(75.6%), 없다는 50명(24.4%)이었다. 죽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43명(21%), 없다는 162명(79%)이었다. 죽음에 대한 이해 정도는 '잘 이해'는 38명(18.5%), '어느 정도 이해'는 113명(55.1%), '조금 이해'는 49명(23.9%), '전혀 이해 못함'은 5명(2.4%)이었다. 좋은 죽음에 대한 교육여부는 '있다'는 42명(20.5%), '없다'는 163명(79.5%)이었다(Table 1 참고).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05)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17(8.3)
	Female	188(91.7)
Age(year)	21-22	96(46.9)
	23-24	97(47.3)
	25-26	6(2.9)
	27≤	6(2.9)
	Range 21-33	
Grade	3rd	111(54.1)
	4th	94(45.9)
Religion	Yes	69(33.6)
	No	136(66.4)
Degree of ethical value	Very firm	20(9.8)
	Some extent firm	135(65.9)
	Sometimes confused	29(14.1)
	Change occasionally	21(10.2)
Thinking of death	Yes	163(79.5)
	No	41(20.0)
Relatives or family death experience	Yes	155(75.6)
	No	50(24.4)
Degree of understanding about death	Well understanding	38(18.5)
	Sometimes understanding	113(55.1)
	A little understanding	49(23.9)
	No understanding	5(2.4)
Education of death	Yes	43(21.0)
	No	162(79.0)
Education of good death	Yes	42(20.5)
	No	263(79.5)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death consciousness

(N=205)

Variables	Categories	n (%)	M±SD	t or F	p
Gender	Male	17(8.3)	2.25±.320	-2.070	.281
	Female	188(91.7)	2.45±.390		
Age(year)	21-22	96(46.9)	2.39±.470	1.012	.389
	23-24	97(47.3)	2.37±.450		
	25-26	6(2.9)	2.10±.324		
	27≤	6(2.9)	2.53±2.20		
Grade	3rd	111(54.1)	2.43±.418	-.038	.063
	4th	94(45.9)	2.43±.351		
Religion	Yes	69(33.6)	2.37±.393	-1.453	.851
	No	136(66.4)	2.46±.383		
Degree of ethical value	Very firm	20(9.8)	2.33±.416	1.897	.131
	Some extent firm	135(65.9)	2.40±0.374		
	Sometimes confused	29(14.1)	2.59±3.335		
	Change occasionally	21(10.2)	2.47±.468		
Thinking of death	Yes	163(79.5)	2.44±.415	.559	.002
	No	41(20.0)	2.40±.260		
Relatives or family death experience	Yes	155(75.6)	2.42±.407	-.517	.256
	No	50(24.4)	2.45±.322		
Degree of understanding about death	Well understanding	38(18.5)	2.33±.416	1.897	.131
	Sometimes understanding	113(55.1)	2.40±0.374		
	A little understanding	49(23.9)	2.59±3.335		
	No understanding	5(2.4)	2.47±.468		
Education of death	Yes	43(21.0)	2.33±.387	-1.902	.912
	No	162(79.0)	2.94±.648		
Education of good death	Yes	42(20.5)	2.38±0.391	-1.01	.987
	No	263(79.5)	2.44±.387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awareness of good death

(N=205)

Variables	Categories	n (%)	M±SD	t or F	p
Gender	Male	17(8.3)	2.92±.423	.208	.491
	Female	188(91.7)	2.89±.504		
Age(year)	21-22	96(46.9)	2.90±.508	1.570	.198
	23-24	97(47.3)	3.04±.480		
	25-26	6(2.9)	2.87±.534		
	27≤	6(2.9)	2.83±.290		
Grade	3rd	111(54.1)	2.52±.486	-2.323	.913
	4th	94(45.9)	2.98±.500		
Religion	Yes	69(33.6)	2.89±.450	-.380	.119
	No	136(66.4)	2.89±.520		
Degree of ethical value	Very firm	20(9.8)	3.04±.574	1.759	.156
	Some extent firm	135(65.9)	2.84±.496		
	Sometimes confused	29(14.1)	3.01±.471		
	Change occasionally	21(10.2)	2.92±4.07		
Thinking of death	Yes	163(79.5)	2.92±.484	1.719	.755
	No	41(20.0)	2.77±.540		
Relatives or family death experience	Yes	155(75.6)	2.92±.485	1.899	.761
	No	50(24.4)	2.77±.518		
Degree of understanding about death	Well understanding <sup>a</sup>	38(18.5)	3.08±.504	2.964	0.03 a>c
	Sometimes understanding <sup>b</sup>	113(55.1)	2.88±.486		
	A little understanding <sup>c</sup>	49(23.9)	2.77±.490		
	No understanding <sup>d</sup>	5(2.4)	2.82±.430		
Education of death	Yes	43(21.0)	2.94±.648	.777	.018
	No	162(79.0)	2.88±.450		
Education of good death	Yes	42(20.5)	2.93±.600	.670	.115
	No	263(79.5)	2.88±.467		

### 3.2 대상자의 죽음의식

대상자들의 죽음의식은 4점 척도 기준에서 3학년은 2.43±.418점, 4학년은 2.43±.351점으로 전체 평균 2.43±.388점으로 대상자들의 죽음의식은 보통수준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 의식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본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t=.559, p=.002$ ). 사후검정 결과 집단별 차이는 없었다 (Table 2 참고).

### 3.3 대상자의 좋은 죽음 인식

대상자들의 좋은 죽음 인식은 4점 척도에서 3학년은 2.52±.486점, 4학년은 2.98±.500점으로 전체 평균 2.89±.497점으로 보통수준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좋은 죽음 인식 정도는 죽음에 대한 교육( $t=.777, p=.018$ )과 죽음에 대한 이해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F=2.964, p=.033$ ). 사후 검정 결과 죽음에 대한 이해를 잘하는 경우가 좋은 죽음 인식이 높았다(Table 3 참고).

### 3.4 대상자의 죽음의식과 좋은 죽음 인식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 대학생들의 죽음의식과 좋은 죽음 인식간의 관계 중 좋은 죽음 인식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r=.161, p=.021$ )(Table 4 참고).

Table 4. The Correlations between death consciousness and the awareness of good death for each grade (N=205)

Variables	r(p)		
	1	2	3
1. Each grade	1		
2. Death Consciousness	-.002 (.976)	1	
3. Awareness of good death	.161 (.021)	-.071 (.311)	1

## 4. 논의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의식 정도는 죽음에 대한 생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 대학생들은 다른 어떤 인구통계 집단보다도 흔히 신체발달, 사회·정치적 인식증가, 정체감 형성, 가족·친구 및 많은 주변 사람들과의 분리 등을 더 많이

포함하며, 인생의 변화에 대처하게 된다[20]. 발달단계상 청년기에 해당되는 대학생들은 신체·생리적인 영역 뿐만 아니라 지적, 정서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와 발달이 나타나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한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는 시기로[21] 이러한 시기에 자신의 이러한 투쟁이 때로 너무 어렵고 힘들어 죽음을 고려하거나 그로 인한 충동적인 자살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22]. 그러므로 간호 대학생들이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맞춤 교육이 필요하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까운 사람의 죽음경험[23]과 가정경제상태와 가정경제 상태만족도[24]가 죽음의식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연구마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죽음의식과 차이를 보이는 특성이 다른 것은 대학생들에게 적용하는 일반적 특성내용이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측정도구가 같더라도 계열별 학생들의 교육과정이 달라 교육과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여 계열별 특성에 맞는 일반적 특성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 대학생의 죽음의식정도는 평균 2.43점으로 보통의 죽음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죽음의식 연구[25]에서는 평균 2.04점이었으며, 한국과 중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진숙 등의 연구[19]에서는 한국 간호대학생의 죽음의식정도는 평균 2.36점으로 본 연구의 점수가 높았으나 중국 간호대학생은 평균 2.50으로 본 연구보다 높았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영화 등의 연구[26]에서는 평균 2.51점으로 본 연구보다 높게 나왔다. 이처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죽음의식 정도에 대한 점수가 보통 정도인 것은 먼 미래인 죽음에 대한 걱정과 염려보다는 가까운 미래인 학업성취나 국가고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관심이 비교적 적기 때문으로 생각되어진다.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죽음의식 연구[24]에서는 2.09±.62점으로 본 연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보다는 낮았고, 응급 구조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3]에서도 평균 2.35점±.48로 나타나 보통수준이지만 본 연구보다 낮았다. 보통수준의 점수이지만 간호 대학생들과 치위생과 학생들 그리고 응급 구조과 학생들 간의 점수가 차이가 있어 계열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를 통한 차이와 관련 요인을 밝힐 필요가 있다.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 대학생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정도는 평균 2.89±0.497점이었다. 간호 대학생을 대상의 선행 연구[16]에서는 3.24±0.038 점으로 본 연구보다는 높았지만,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7]에서는 2.44±0.312점으로 본 연구가 높았다.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이 죽음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요인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공포,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 알지 못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하지만[28], 죽음 준비교육 이후 좋은 죽음의식 점수가 3.09+.37로 증가하여 대상자들이 좋은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는 간호사로서의 준비를 위해 간호 대학생들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년별과 좋은 죽음 인식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r=.161, p=.021$ ). 즉, 4학년이 3학년보다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학년별 좋은 죽음 인식을 연구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할 수 없지만,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9]에서 좋은 죽음 인식에 근무경력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대상자는 다르지만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다양한 경험과 임상경험이 쌓일수록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좋은 죽음 인식이 삶의 의미, 죽음에 대한 태도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선행 연구[3,26] 결과에 따라 추후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년별 좋은 죽음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 대학생들의 죽음의식과 좋은 죽음의식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간호학생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죽음에 대한 태도 연구[26]에서는 통계학적으로 미약하지만 부적 상관관계가 있어( $r=-.17, p=.005$ )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또한 죽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면 죽음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나타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30]결과와도 차이를 보였다. 대학생들은 생애발달단계에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대학입학 이전의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입시위주의 환경으로 인해 발달과업이 지연된 채 대학생활을 하게 되고,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로 성인의 책임과 의무를 강요받게 되어 정체감 형성의 혼란과 심리적 어려움을 과중하게 경험하게 된다[31]. 그래서 죽음과 좋은 죽음 의식관계가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아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하지만 간호사 대상 연구[30]에서 죽음의식과 좋은 죽음간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간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죽음의식과 좋은 죽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 대학생은 아직 간호사로서 직업의식과 소명이 갖추어지지 않고 죽음과 좋은 죽음에 대해 인식이 확립이 되지 않아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 미래 간호사가 될 간호 대학생들의 죽음의식과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교육과 이러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 대학생들의 죽음의식과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관계를 확인하고자 3학년 111명, 4학년 94명인 총 2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 대학생들의 죽음의식과 좋은 죽음 인식은 보통수준이었다. 죽음의식은 죽음에 대한 생각,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은 죽음에 대한 이해와 죽음교육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임상실습을 경험한학년별 죽음의식과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은 좋은 죽음 인식정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죽음의식과 좋은 죽음간의 상관관계는 없었다. 그러나 간호 대학생은 미래 간호사로서 대상자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죽음의식과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죽음에 대한 생각과 이해 및 교육을 통해 죽음의식과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을 향상할 시키기 위한 간호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부 간호 대학생들을 편의 추출하여 연구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간호 대학생들로 일반화시킬 수 없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죽음과 좋은 죽음에 대한 교육과 죽음을 맞이하는 대상자를 돌보는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 대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죽음관련 인식을 제공할 지속적인 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 REFERENCES

[1] K. J. Yoo. (2008). Conditions and Direction of

- Well-dying from the viewpoint standing on the Contemporary Cultural Context of Korean's. *Journal of Eastern Philosophy*, 55, 7-43.
- [2] S. H. Kim & I. J. Kim. (2014). The Attitude to a Good Death of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8(3), 103-112. DOI : 10.12811/kshsm.2014.8.3.103
- [3] E. H. Kang & M. Y. Kim. (2017). Good Death, Self-Esteem, and Attitude to Life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ealth Science*, 14(1), 1-10.
- [4] H. J. Lee. (2013). A Study on the Nursing Student's Attitude Toward Death and Perception on Hospice Car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9(2), 88-95. DOI : 10.14370/jewnr.2013.19.2.88
- [5] J. A. Thorson & F. C. Powell. (1988). Elements of death anxiety and meanings of deat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4(5), 691-701.
- [6]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SI. september. 2016. <http://kosis.kr/publication/publicationThema.do>.
- [7] E. K. Byun. H. R. Choi, A. L. Choi, N. M. Kim, K. H. Hong & H. S. Kim. (2003). An Investigative Research on the Attitudes of Intensive Care Unit Nurses and Families on Termination Life Support.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9(1), 112-124.
- [8] G. J. Lee, K. H. Hwang, J. R. Ra, J. A. Hong & C. S. Park.(2006). Concept analysis of good death. *Journal Hospice & Palliative care*, 10, 23-39.
- [9] M. Cornelia, S. Ulrich, K. Mirjam & B. Gerhild, (2015). Perceptions of a Good death Among German Medical Students. *Death Studies*, 39(5), 307-315. DOI: 10.1080/07481187.2014.951496
- [10] J. G. Kim, S. M. Oh, E. Y. Cheon & J. H. Yoo. (2016). Factors influencing the attitude toward death on college nursing student. *Journal fo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 676-683. DOI : 10.5762/KAIS.2016.17.1.676
- [11] A. E. Stewart, J. H. Lord & D. L. Mercer. (2000). A survey of professionals' training and experiences in delivering death notifications. *Death studies*, 24(7), 611-631.
- [12] S. H. Kim, D. H. Kim & H. M. Son. (2011). Comparison of Attitude of Nursing Students toward Death,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Clinical Experienc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14(3), 144-151.
- [13] S. H. Kim & D. H. Lim. (2011). Nursing Students' Attitude to Death, Death-related Education Experience and Educational need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3), 405-413. DOI : 10.5977/JKASNE.2011.17.3.405
- [14] K. H. Kim, K. D. Kim, H. S. Byn & B. Y. Chung. (2010). Spiritual Well-Being, Self Esteem, and Attitudes to Death among Nursing Students. *Asian Oncology Nursing*, 10(1), 1-9.
- [15] Y. J. Lee & Y. S. Kim. (2017). The Difference of the Death Perception, Death Attitude and the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the completion Bioethics Education. *Journal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18(2), 95-109.
- [16] E. J. Choi & H. S. Jeong. (2018).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Good Death Recognition, and Self-Esteem on the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19(5), 275-284.
- [17] E. J. Seo & N. H. Cha. (2016). Relationships among Nursing Professional Values, bioethics and Death Ethic Percep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5), 349-58. DOI : 10.14400/JDC.2016.14.5.349
- [18] S. C. Park. (1992). A Study on the Death Orientation of Hospice Volunte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2(1), 68-80.
- [19] J. S. Lee, H. S. Choi, Z. S. Li & W. S. Choe. (2008). The Death Orientation of nursing students in Korea and China. *Korean journal of hospice care*, 8(1), 1-12.
- [20] C. E. Schwartz, K. Mazor, J. Rogers, Y. Ma & G. Reed. (2003). Validation of a new measure of concept of a good death. *Journal of palliative medicine*, 6(4), 575-584.
- [21] K. A. Kang, S. J. Kim. M. K. Song & S. Sim. (2007).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n instrument for adolescents meaning in lif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 625-634.
- [22] Y. K. Min. (2005). Evaluation on Suicidal Risk Factors and Suicidal Thought of College. *Journal of Student Guidance*, 31, 31-52.
- [23] J. E. Lee & B. Y. Koh. (2011). The Death Orientation of Paramdic Student.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15(3), 45-55.
- [24] S. Y. Han, U. J. Jung & S. Y. Cheon. (2013). RESEARCH ARTICLES : A Study on the Degree of Depression and Death Orientation of Some Students Majoring in Dental Hygiene. *The Korean Society of the Dental Hygine Science*, 13(3), 230-237.
- [25] E. Y. Yu, Y. J. Yang, & E. Y. Jung. (2017). Attitudes toward death awareness among department of health

-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5), 241-251. DOI : 10.14400/JDC.2017.15.5.241
- [26] Y. H. Cho & S. R. Shu. (2017). Awareness of the Good Death and Attitude toward Death among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ety*, 7(1), 597-607. DOI : 10.14257/AJMAHS.2017.01.62
- [27] T. Y. Kil & W. H. Cho. (2017). The Effect of Death Preparation Education on the Perception of Good Death, Death Attitude and Meaning of Life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on Social Welfare. *Journal of Future Social Work Research*, 8(2), 37-64.
- [28] K. Hegedus, A. Zana & G. Szabo. (2008). Effect of end of life education on medical students' and health care workers' death attitude. *Palliative Medicine*, 22(3), 264-269.
- [29] S. N. Kim & H. J. Kim. (2016). Recognition of Good Death, Attitude towards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Attitude towards Euthanasia in Nurses.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19(2), 136-144. DOI : 10.14475/kjhpc.2016.19.2.136
- [30] M. S. An & K. J. Lee. (2014). Awareness of Good Death and Attitudes toward Terminal Care among Geriatric Hospital Nurses.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17(3), 122-133. DOI : 10.14475/kjhpc.2014.17.3.122
- [31] H. S. Lee, S. Y. Kim, I. Park, Y. J. Kang, J. Y. Lee & J. H. Kwon. (2012). The reasons of suicide-related ideation and behavior and the reasons for not choosing suicide amo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24(3), 703-28.

백 소 영(Baek, So Young)

[정회원]



- 2012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7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수료)
- 2015년 9월 ~ 현재 : 청암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학, 중환자간

호, 종양간호

· E-Mail : bcow0@hanmail.net